

# 분기 실적보고

## 2015.1Q

### Summary of 2015 1Q

1. 연결매출 **25.0%** 증가 **504**억  
연결영업이익 **115.2%** 증가 **64**억
2. 별도매출 **18.8%** 증가 **469**억  
별도영업이익 **44.9%** 증가 **73**억
3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35.0%** 증가
  - 패키지 송객인원 **27.3%** 증가
  - 티켓 송객인원 **55.7%** 증가
4. 일본 **87.3%**, 동남아 **39%**, 유럽 **20.7%** 증가 (송객인원)

**별도실적 : 인원 35% 매출 18.8% 영업이익 44.9% MS 11.18%**

15년 1분기는 인원, 매출, 영업이익, MS 모든 부분에서 더욱 성장했습니다. 송객인원 기준 패키지는 27%, 티켓 55% 성장하여, 패키지와 송객인원 합산 35%의 YOY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인원 뿐만 아니라, 매출은 18.8%, 영업이익 44.9%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매출 성장이 인원 성장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, 이는 MS 확대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전략에 따른 결과입니다. 실제로 MS는 전년 동기 9.9%에서 약 1.3%p 상승한 11.18%를 기록했습니다. **주목할 점은 OPM이 전년 1분기 12.8%에서 올해 1분기 15.6%로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며, 이는 고정비단에서 오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.** 이런 점을 고려하면 1분기는 성과는 준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, 향후 실적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. 더욱이, 15년 2분기의 예약 상황은 1분기 보다 더 좋아, 올 한해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2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(단위 : 명, %)

	패 키 지	티 켓	총 송객인원
1Q 15	334,953	151,967	486,920
1Q 14	263,081	97,581	360,662
YOY	27.3%	55.7%	35.0%

**연결실적 : 매출 25.0% 영업이익 115.2%**

15년 1분기 연결실적은 영업이익의 성장이 두드러 집니다. 영업이익 64억, YOY 성장률 115.2%를 달성했습니다. 성장률의 큰 증가는 종속회사인 모두투어인터내셔널의 대손이 14년 3Q를 기점으로 모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앞으로도, 이와 같이 큰 마이너스 요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. 15년 1분기는 작년 4분기와 다르게 연결 영업이익이 별도 영업이익을 하회했습니다. 이는 자회사들의 성비수기가 본업과 다르며, 이에 따른 분기별 실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특히,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종속회사 서울호텔관광전문학교는 등록금이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분기별 실적 편차가 큰 편 입니다. 그러나, 이는 15년 연간실적에 이미 반영된 수치로 가이드스에는 변동이 없습니다. 아울러, 14년 대손에 의한 기본적인 기저 효과와 더불어 호텔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도 기여도가 점차 높아져 **연결 실적이 별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** 예상됩니다.

**IS 특이사항**

**연결매출액은 504억으로 전년대비 25% 증가, 영업이익은 64억으로 전년대비 115% 증가 했으며,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전년 1분기 7.4%에서 15년 1분기 12.7%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.**

매출에서 항공권 판매 성장으로 인해 **항공권판매수수료가 90% 성장** 했습니다.

매출원가 증가는 호텔 증가에 따른 식자재 및 소모품 재고 증가 때문입니다.

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증가 또한 호텔 증가에 따른 부분이며, 대손상각비의 감소는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의 대손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.

영업외수익 감소는 14년 1분기에 인터파크INT지분 매도로 인한 비정기적 수익 발생 때문입니다.

영업외비용에서 이자비용 증가는 호텔 인수 관련 모두투어리츠 차입금으로 인해 발행하였습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손익 계산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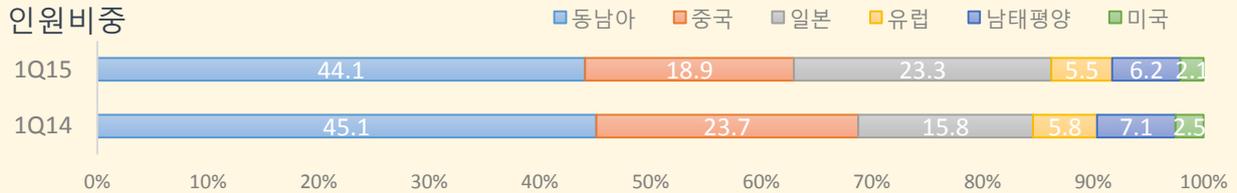
### 끌어주는 일본, 밀어주는 동남아와 유럽

1분기 해외 지역별 인원비중은 동남아 44.1%, 일본 23.3%, 중국 18.9% 순서입니다. 지역별 매출비중은 동남아 44.1%, 일본 15.0%, 중국 14.9%, 유럽 12.7% 였습니다. 1분기 내 유류할증료 하락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이연수요가 모두투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

일본지역은 1분기에도 성장폭이 큰 지역이었습니다. 유류할증료 인하와 더불어, 엔저와 방사능 우려 감소 등 긍정적인 지역요인이 더해지면서, 인원 87% 성장을 달성했습니다.

동남아의 실적은 작년 말부터 꾸준히 개선되어, 15년 1분기에 인원이 24% 성장했습니다. 인원비중, 매출비중 모두 44.1%로 1분기 전체적 성장에 밀거름이 되었습니다.

유럽의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1분기의 연간 기여도가 낮은 유럽의 특성을 고려하면 20%의 인원성장률은 긍정적이며, 유럽의 성수기인 2,3분기의 좋은 실적을 예상하게 합니다. 그 외의 중국이나 남태평양, 미주 지역은 월별로 편차가 있었지만, 1분기 전체로는 플러스 성장을 하였습니다.



### 예약률 증감 (패키지)

(단위 : 명, %)

	5월	6월	7월
2015년	89,782	49,754	20,652
2014년	64,178	40,970	13,759
증감률	39.9%	21.4%	50.1%
2014년 마감	75,435	73,720	86,108

\* 2015.5.4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5월 예약률 39.9%, 6월 21.45%로 2Q가 진행될수록 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기저효과가 강해지고 있습니다. 7월은 예약률 50.1%로 시작하며, 기저효과 영향력이 더욱 큰 모습입니다. 2Q도 그간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근거리 지역의 성장을 바탕으로 장거리 지역에서 유럽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